

켄텍, 과기정통부 AI 분야 국가사업 3개 잇단 선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미래형 캠퍼스를 표현한 조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약 480억 원 투입해 석·박사급 인재·재직자·신진연구자 지원
전남광주 기업 70여 곳과 에너지·모빌리티·농업AX 연구·실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3개 사업에는 약 480억 원이 투입돼 석·박사급 인공지능 전문인력과 지역 산업 재직자 역량을 높이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한다.

켄텍은 전남광주 지역기업 70여 곳 등과 협력해 에너지·모빌리티·농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연구·실증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이끄는 현장 중심의 석·박사급 인공지능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켄텍은 한국전력공사, ㈜티디엘과 함께 전력망 등 에너지 시스템과

차세대 에너지 소재 분야의 연구·실증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6년간 국비 163억 원과 시비 5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9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대학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지역 산업 재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켄텍은 지역 70여 개 기업과 협력해 에너지·모빌리티·농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ICT 기반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총 19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33년까지 8년간 국비 150억 원과 시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이 투입된다.

켄텍은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사업(AI스타펠로우십)'에도 선정

됐다. 이 사업은 우수 신진연구자(박사후연구자나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 교원 등)의 창의적·도전적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국비 약 110억 원을 지원받는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국가사업 선정을 통해 켄텍의 인공지능 연구·인재양성 역량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과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켄텍의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역량을 지역 산업의 혁신으로 연결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고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확산해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현대차·기아, 서울시 자율주행 시내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율주행 특화 차량 개발과 전용 관제 플랫폼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함께 미래 자율주행 시내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서울특별시, 서

울특별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목) 밝혔다.

서울시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

에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박민우 사장, 서울특별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김정환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의 자율주행 시내버스 실증 및 운영을 통해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자율주행 시내버스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

립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AI 기반 학습 데이터 공유 등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수사의 자율주행 시내버스 전환과 인력 및 인프라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와 연동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특화 버스를 개발·공급하고, 운수사의 차량을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기반 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대차·기아가 개발하는 자율주행 특화 버스는 표준화된 센서 구성을 갖추고 신뢰성 높은 이중화 부품을 탑재해 플랫폼 형태의 차체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개발사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개발하고, 운수사는 운행의 연속성을 확보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차량 외에도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버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제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서울시 버스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기영 기자

